

사회주의 시장경제 속 인간의 존엄성

- 余華의 《兄弟》 하권과 《第七天》을 중심으로 -

裴 柱 愛*

〈目 次〉

I. 서론	III. 황금을 향한 끝없는 욕망과 인간 존엄성의 파괴
II. 양극단의 中國	1. 욕망 앞에 짓밟힌 인간의 존엄성
1. 文革과 改革·開放	2. 가난 앞에 무력해진 인간의 존엄성
2. 소설을 통해서 들여다본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IV. 결론

I. 서론

중국은 大躍進運動과 문혁으로 인해 피폐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고 개혁 초기 단계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서서히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2년 共産黨 14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기본 노선으로 확정하면서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계기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었고 2001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했다. 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이어 2010년에는 G2(Group of Two)의 지위에 오르면서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다.¹⁾ 중국의 이러한 약진은 세계 경제사에

* 전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백승욱, 《세계화의 경계에선 중국》, 파주: 창비, 2008, 16쪽 참조.

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이채로우며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빠른 성장과 함께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현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先富論’을 제창하며 경제 발전에 주력했던 공산당 정부가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共富論’을 내세우며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성과만 있을 뿐 균형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책이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혁이라는 급진적 사회주의 운동이 막을 내림과 동시에 다시 한번 급진적인 시장경제 체제가 시행되면서 중국의 인민은 양극단의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개혁·개방 초기, 농촌개혁 및 대외 개방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의 바람 불었고, 인민들은 더 나은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기대가 컸고 이 때문에 당시 鄧小平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 기조에 대한 반감은 크지 않다. 그러나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한 이들은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큰 부를 이룰 수 있었던 반면,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대다수 인민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부적응,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커지는 빈부격차와 그로 인한 박탈감을 체험하게 되었다.

문학 역시 중국의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인민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작품 속에 반영해내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위화가 2000년대 이후 발표한 두 편의 소설, 《형제》(상권 2005년, 하권 2006년)와 《제7일》(2013년)이 있다. 이 두 작품은 작가의 이전 작품들과는 다르게 ‘當代性’이라는 특징을 띠고 있다. 《형제》의 상권이 문혁 당시 중국 사회의 광적인 모습을 폭로했다면, 하권은 ‘당대 중국사회’, 특히 물질만능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광기 어린 모습을 묘사했다. 그리고 《제7일》은 ‘당대 중국사회’에서 벌어진 각종 사건·사고를 이야기의 소재로 사용했다. 《형제》의 하권과 《제7일》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실행 이후,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과 함께 심화가 된 빈부격차와 불평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위화가 1990년대 발표했던 작품의 시대적 배경, 즉 國共內戰, 대약진운동, 문혁과 같은 중국의 近·現代史를 관통하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고난과 가난의 시대, 중국의 거의 모든 인민이 공통으로 겪어야만 했던 어려운 사회 상황을 배경으로 했던 작품들과는 또 다른 색채를 띠고 있다. 《형제》와 《제7일》이 투영해낸 사회와 등장인물의 삶의 모습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사회가 세계 어느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철저하게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주의 국가의 이념에 따라 건립된 ‘中華人民共和國(People’s Republic of China)’의 경제 발전사,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들어서는 과정을 되짚어보고, 당대 중국사회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로 대두된 부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또 중국의 이러한 양극화 현상과 관련하여 위화의 소설 《형제》와 《제7일》이 중국인들의 삶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특히 당대 중국사회의 拜金主義 사상과 불평등이 빚어낸 사회문제와 이러한 사회가 인간의 존엄한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여 논해봄으로써 작가가 작품에 담아내고자 한 문학적 진실은 무엇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양극단의 중국

1. 문혁과 개혁·개방

毛澤東이 무리하게 추진한 대약진운동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는 후퇴했고 수많은 餓死者가 발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인해 약해진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문혁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중국의 경제가 다시 한번 후퇴하게 되면서 민생은 극도로 피폐해졌다.

중국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라고 불리는 문혁이 막을 내리면서 중국 지도부는 그동안 피폐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했다. 덩샤오핑은 ‘黑猫白猫論’²⁾을 인용하여 개혁·개방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1985년 다시 한번 ‘선부론’을 내세우며 경제 발전에 힘을 쏟을 것을 재차 강조했다. 1992년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표명했는데, 이는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중국의 경제를 부흥, 발전시키기 위한 자구책이었다.

이렇게 개혁·개방 정책에 힘을 쏟아 추진하면서 중국은 고속 성장을 이루어 나갔고 현재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 ‘흑묘백묘론’과 ‘선부론’은 중국의 낙후된 경제력을 지금과 같이 키운 밑거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사회를 철저한 물질만능주의 사회로, 불평등과 불균형의 사회로 들어서게 한 시발점이기도 하다. 특히 덩샤오핑은 “일부 지역, 일부 사람이 먼저 부를 이루고 기타 지역과 사람을 이끌고 도우며 점차 공동의 부를 이루자.”, “나의 일관된 주장은 일부 사람들이, 일부 지역이 먼저 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고, 대원칙은 공동의 부를 이루는 것이다.”³⁾라고 언급하며, 경제 발전으로 부를 이루면 공동의 부도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현실을 보면 덩샤오핑의 이러한 주장은 실현이 요원한 일임이 분명하다. 물론 중국 정부도 이러한 불균형에 대

2) 한국에서는 흑묘백묘론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백묘흑묘론(白猫黑猫論)이라고 부른다. 이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치를 주도하며 “不管黑猫白猫, 捉到老鼠就是好猫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유명해진 이론으로 중국사회의 경제발전을 향한 이념의 표지가 되었다. <https://baike.baidu.com/item/白猫黑猫论/6058575?fr=aladdin>, 2022년 8월 30일 인터넷 검색.

3) “一部分地區、一部分人可以先富起來, 帶動和幫助其他地區、其他的人, 逐步達到共同富裕”, “我的一貫主張是, 讓一部分人、一部分地區先富起來, 大原則是共同富裕”. <經濟日報>에 실렸던 선부론에 관한 덩샤오핑의 말을 재인용, http://www.ce.cn/xwzx/gnsz/gdxw/202110/11/t20211011_36978378.shtml 참조, 2022년 8월 30일 인터넷 검색.

해 자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西部大開發’ 정책을 추진, 교통 인프라 정비, 교육과 환경 등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투자 정책으로 인해 서부의 여러 성이 경제적 성장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부 내륙의 경제 성장은 그동안의 불평등을 해소 시킬 만큼의 성과를 냈다기보다는 빈곤에서 벗어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東部沿海 지역과의 소득격차를 크게 줄이지는 못했다. 이러한 불평등은 비단 西部內陸과 동부연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국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면서 수많은 인민은 노동의 대가로 평등하게 분배받는 나라에 살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졌고 중국 공산당을 지지했지만 ‘공평한 부의 분배’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현재 중국의 상황으로만 평가한다면 한낱 一場春夢과도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세계 어느 나라에나 불평등은 존재하고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인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불균형과 불평등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큰 문제임을 자명하다. 결국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가 되자 공산당 정부는 ‘선부론’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정책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세계 어느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철저하게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를 이룩한 지금의 중국은, 사실상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며, 현 상황으로만 본다면 이미 그 이념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 사회에 뿌리내린 시장경제 체제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더 큰 불평등과 불균등한 사회를 야기했다. 이러한 사회 상황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도 반영되기 시작했는데, 위화는 2006년에 출판된 《형제》의 하권과 2013년에 출판된 《제7일》이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작가는 두 작품을 통해서 중국사회의 어두운 이면, 특히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빈부격차’와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피폐해진 도시 하층민들의 삶을 묘사해 냈다.

《형제》 하권이 출판된 이후, 작품은 중국사회에 커다란 이슈가 되었

다. 이는 여전히 출판물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에서 당대 사회의 모습, 특히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일그러진 사회와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당시 중국사회에서 이와 같은 작품의 정식 출판은 그 전례를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작품은 출판과 동시에 중국 독자들의 주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논란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형제》는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 출판되었는데, 상권에서는 문혁의 시대를, 하권에서는 80년대 이후, 당대 중국사회를 다름으로써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회의 모습을 담아냈다. “문혁은 하나의 극단이었고, 오늘 역시 또 다른 극단이다. 극단적으로 억압적이던 시대는 사회형태가 급변하면 반드시 극단적으로 방탕한 시대로 반등하기 마련이다. 내가 기대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방탕과 부조리는 거의 정점에 이르렀고, 분명 서서히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믿는 것, 혹은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내가 희망하는 것은 향후 10년 혹은 20년 동안 중국 사회형태가 차츰 보수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스스로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⁴⁾ 이는 《형제》에 대한 논쟁 이후 작가가 쓴 창작일지의 일부로, 작가는 ‘방탕과 부조리’라는 말로 당대 중국사회를 설명하고 있으며 ‘보수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국사회를 살리는 것이라는 자신만의 관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권의 여러 나라가 경제 발전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방탕과 부조리’를 경험했고 현재에도 여전히 ‘방탕과 부조리’가 넘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아시아권의 많은 나라가 인간의 가치 있는 삶과 자본주의 사이의 조율 그리고 개발 속도에 맞는 정책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립 없이 오로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자본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방탕과 부조리’가 넘쳐나는 사회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작가는 “한 서양인이 4백 년을 살아야 경험할 수 있는 양극단의 시대를 한 중국인이

4) 위화 지음, 이옥연 역, 《우리는 거대한 차이 속에 살고 있다》, 파주: 문학동네, 2016, 234-235쪽.

겪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40년이였다. 4백 년간의 온갖 풍파와 천변만화가 이 40년에 농축되어 있다.”⁵⁾ 말로 중국인들 겪은 풍파와 혼란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결국 《형제》의 창작 의도는 중국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반감이라기보다는 안타까움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회 풍토에 대한 경계와 자숙의 표현으로 보인다.

1960년생인 작가는 몸소 문혁과 개혁·개방을 모두 겪었던 세대로서, 엄격한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성장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 오랜 시간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살면서 느끼는 감정, 특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회에 대해 염려했다. 작가는 또한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두고 “우리는 멀리뛰기 경기라도 하듯 물질이 극단적으로 결핍된 시대에서 낭비가 넘치는 시대로, 정치 지상의 시대에서 금전 제일의 시대로, 본능이 억압된 시대에서 욕망이 넘쳐나는 시대로 건너뛰었다. 이 30년이란 세월이 몸을 한 번 웅크렸다가 도약하는 시간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⁶⁾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동자의 나라, 공평한 부의 재분배를 외치며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나라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극심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만연한 나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러니 사회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변화는 그야말로 天地開闢의 수준이었을 것이다. 위화 역시 극히 억압적이었던 문혁 시기와 개혁·개방 이후 자본을 향해 들끓는 욕망의 사회를 목도 하면서 그 사회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목과할 수 없었던 자신의 고뇌와 염려를, 작품을 통해 풀어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형제》는 극명히 대비되는 두 사회를 상·하권으로 나누어서 중국사회의 변화를 그렸다. 《형제》의 출판 이후 여전히 작가가 바라는 ‘보수적 방향’의 사회로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탕과 부조리’가 더 깊게 뿌

5) 위화, 최용만 역, 《형제2》, 파주: 푸른숲, 2017, 475쪽.

6) 위화 지음, 김태성 역,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파주: 문학동네, 2015, 194쪽.

리를 내렸다. 작가는 더욱 심화가 된 양극화 현상과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제7일》을 통해 풀어내 놓았다.

2. 소설을 통해서 들여다본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중국은 공유제를 기반으로 둔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의 또 다른 표현은 평등하고도 균등한 분배를 기초로 하고 있다.”⁷⁾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사회의 현실은 ‘평등’하고 ‘균등한 분배’와는 거리가 멀어졌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 이념은 개방개혁 이후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퇴색되고 말았다. 자본주의의 도입과 함께 생겨난 빈부의 격차는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만큼이나 크고 빠르게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불러왔다. 위화의 소설 중 《제7일》의 도입부는 바로 이러한 중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귀빈 구역의 화제는 수의와 유골함이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은 모두 최고급 명주 수의로, 손으로 직접 수를 놓은 화려한 무늬가 눈에 띄었다. 그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수의의 가격을 말하는데, 여섯 명 모두 2만 위안이 넘었다. 그러고 보니 차림새가 전부 궁중에 사는 사람들 같았다. 이어서 그들은 자신의 유골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두 장미목 재질에 정교한 무늬가 조각되어 있으며 6만 위안이 넘는다고 했다. 유골함의 명칭마저 단향궁전, 선학궁, 용궁, 봉궁, 기린궁, 단향사릉으로 호화스럽기 그지없었다. (중략)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인조 견사에 천연 면사가 섞인 1천 위안 이하의 수의를 입고 있었다. 유골함은 측백나무나 잣목 재질에 조각은 없었고 가장 비싼 게 8백 위안, 가장 싼 게 2백 위안이었다. (중략) 하지만 내게는 유골함이 없었다. ‘고향 회기’, ‘불후의 명성’ 같은 값싼 유골함마저 없었다. 나는 고민에 빠졌다. 내 유골은 어디로 가야 하지? (중략) 화장터 가마에서 나오는 내 유골을 받아주는 건 빗자루와 쓰레받기일거야. 그런 다음엔 쓰레기통이겠지.⁸⁾

7) 한인희·강준영·양평섭·박한진·전병곤·강진석·임대근·장리리, 《중국속의 中國 -G2시대: 중국발전의 빛과 그림자》, 서울: 도서출판 대선, 2010, 293쪽.

귀빈 구역의 망자들이 입은 2만 위안이 넘는 수의는 현재 韓貨로 약 400만 원, 6만 위안의 유골함은 1,200만 원 정도이다. 그리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이들의 1천 위안 이하의 수의는 한화로 19만 원, 가장 싼 유골함이 3만 9천 원 정도인데, 그 정도의 돈도 없는 주인공 楊飛(양페이)⁹⁾는 자신의 유골이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참으로 씁쓸한 도입부가 아닐 수 없다.

작가는 망자들의 입을 통해, 지금의 중국사회는 사후의 세계에서조차도 차등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죽은 이를 화장하기 위한 殯儀館(화장터)에서조차도 망자들은 돈과 권력에 의해 최고급 귀빈실과 귀빈실, 일반실로 나누어져 차별받았으며, 유골함, 수의, 묘지의 가격 역시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는 天壤之差였다. 가진 자들이 묘지의 넓이, 조경, 위치에 대해 논하고 있을 때, 가지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 “일부는 불공평하다며 화를 내고, 일부는 깊은 수심에 잠겼다. 25년 뒤에는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것이었다. 25년 뒤면 묘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텐데 가족들이 돈 낼 능력이 없으면 자기 유골이 밭에 비료로 뿌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¹⁰⁾ 이렇듯 죽음조차도 빈부격차에 따라 차등이 존재하는 나라, 죽어서조차도 불공평한 사회를 향해 화를 내게 되는 상황, 위화의 소설은 중국사회의 양극화가 얼마나 극에 치달았는지를 빈의관에 모인 망자들의 대화를 통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소설은 ‘鼠族(쥐족)’ 鼠妹(슈메이)와 그녀의 남자친구 伍超(우차오)를 통해서 중국사회의 극단적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쥐족이란 비싼 집값으로 인해 문혁 시기에 만들어진 지하 방공호나 아파트 건물의 지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소설에서는 “그곳은 도시 내 최대 규모의 지하 거주지였다. 기사에 따르면 도시 방공

8) 위화, 문현선 역, 《제7일》, 파주: 푸른숲, 2013, 19-21쪽.

9) 본 논문에서 사용된 위화 소설 등장인물의 이름 및 지명은 한국어 번역·출판된 작가의 소설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10) 위화, 문현선 역, 앞의 책, 27쪽.

호에는 최소 2만여 명이 살고 있으며, 쥐처럼 지하에서 나와 하루 동안 일한 뒤 다시 지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쥐족’이라고 부른다고 했다.”¹¹⁾ 라고 그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극단적인 빈부격차는 비단 《제7일》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형제》의 하권은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형제, 李光头와 宋鋼의 삶을, 긴 흐름의 서사를 통해서 묘사함으로써 두 사람의 상반된 처지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놓았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큰 부를 이룬 이광두는 그가 벌어들인 돈으로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광적인 욕망을 표출하는 데 힘을 쏟아붓지만, 자본주의의 그늘에 실업자로 전락한 송강은 더 깊은 가난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제7일》의 주인공 양페이와 쥐족 슈메이, 우차오 그리고 《형제》의 송강이 가난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슈메이의 다음 말을 통해서 그 이유를 들여다보도록 하자.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남자 친구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3년 동안 미용실 세발 직원과 음식점 종업원이라는 고정된 일과 비정기적인 일을 했다. 다섯 차례 월세가 싼 곳으로 셋집을 옮기다가”¹²⁾ 결국에는 지하 방공호에 사는 쥐족 신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젊고 가난한 연인 슈메이와 우차오는 아무리 일해도 속수무책으로 오르는 집값을 감당할 재주가 없었다. 그렇다면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회사에 다니던 양페이는 왜 사회의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했을까? 양아버지 楊金彪(양진바오)가 병에 걸리면서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팔았고 병을 간호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면서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형제》의 하권에서 송강의 처지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되었고, 이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다시 한번 시멘트 공장에 취직했지만, 폐병까지 얻으면서 건강을 잃었고, 그 후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11) 위화, 문현선 역, 앞의 책, 162쪽.

12) 위화, 문현선 역, 앞의 책, 163쪽.

두 작품의 내용을 기반으로 봤을 때, 낮은 임금, 높은 집값, 비싼 의료비 등은 평범한 중국인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을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는 과연 소설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위화의 소설이 비록 르포는 아니지만, 그는 이미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 그리고 창작 후기를 통해서 작품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콩 중문대학교 석좌교수이며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학자 郎鹹平(랑셴핑)은 《부자중국; 가난한 중국인》이라는 저서를 통해 중국인의 삶이 고달픈 이유에 대하여, 경제와 직결된 16가지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랑교수의 손꼽는 16가지 현안 중에서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인의 소득은 왜 낮은가?, 중국 젊은이들은 왜 성공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가?, 중국의 의료 개혁은 왜 어려운가?, 중국의 부동산개혁은 왜 어려운가?”¹³⁾에 대한 현안이다. 위화 소설의 서사를 통해 바라본 중국 하층민들의 고달픈 삶과 랑교수의 이 몇 가지 현안들이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화의 소설 속 등장인물과 사건의 서사 방식을 봤을 때, 그의 작품들이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창작된 허구이기는 하나, 작가 그려낸 등장인물들의 고된 삶은 중국의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볼 수 있다.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를 지니계수라고 한다. 지니계수에 대한 중국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면 2021년 8월 중국 당 중앙경제위원회는 지니계수가 0.4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¹⁴⁾ 지니계수는 0에서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빈부의 격차가 큼, 즉 불평등함을 나타내는데, 같은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지니계수는 0.314이고 통상 0.4를 넘으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본다.¹⁵⁾ G2의 지위

13) 랑셴핑, 이지은 역, 《부자중국; 가난한 중국인》 참조, 서울: 미래의 창, 2011.

14)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027010015935> 참조, 2022년 9월 7일 인터넷 검색.

에 오른 중국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지니계수를 놓고 보면 이 부강한 나라에서 다수의 중국 인민이 고달픈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리커창 중국 총리는 14억 중국인 중 6억 명의 월수입이 한화 18만 원도 안 되는 빈곤 상태라고 토로했으며,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일해봤자 착취만 당한다며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뜻의 ‘躺平(탕핑)’ 주의가 유행하고 있다.¹⁵⁾ ‘탕핑’이라는 단어를 바이두에서 찾아보면 2021년 인터넷상에서 최대의 화두가 된 단어 중 하나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원래부터 돈이 적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었는데도 두 달이 지나자 돈이 거의 떨어졌어요. 일자리를 찾아야겠다고 말했더니 그는 싫다고, 다시는 무시당하기 싫다고 하더군요.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면 굶어 죽는 수밖에 없다고 했더니 굶어 죽더라도 무시당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울었어요. 정말 슬프게 울었어요. 그한테 화가 나서 운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너무 불공평해서 울었어요.¹⁷⁾” 이는 《제7일》에서 귀족 슈메이가 빈의관으로 향하는 길에 남자친구 우차오와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사회의 불공평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이 대목을 보면 2013년에 출판된 《제7일》에서 이미 중국 젊은이의 절망을 ‘탕핑’주의와 비슷한 양상으로 묘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굶어 죽더라도 무시당하기 싫다’는 우차오, 위화의 소설은 ‘탕핑’ 주의의 유행 이전에 이미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 젊은이들의 절망을 그려냈다.

실제로 중국의 지니계수가 지난 20여 년간 0.46~0.49를 오갔으며 이마저도 저평가되었다는 내용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렇게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 되고 장기화 되면서 파생된 단어 ‘탕핑’은 중국사회를 향한 젊은이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15) <https://m.khan.co.kr/world/china/article/202106282128025#c2b> 참조, 2022년 9월 7일 인터넷 검색.

16)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6807_34936.html 참조, 2022년 9월 7일 인터넷 검색.

17) 위화, 문현선 역, 앞의 책, 289쪽.

Ⅲ. 황금을 향한 끝없는 욕망과 인간 존엄성의 파괴

지난 세기 90년대에 발표된 위화의 소설 《活著(인생)》(1992년), 《許三觀賣血記》(1995년)와 2000년 이후의 작품 중 《형제》의 하권, 《제7일》의 가장 큰 차이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설의 배경이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사회에서 개방개혁 이후의 사회, 즉 중국의 현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은 소설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묘사되고 있는 인간의 삶의 방식, 그 방식을 통한 존엄성에 관한 서사라고 보인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인가? 서강대 법학과 홍성방 교수는 칸트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간이 ‘자체목적’(Selbstzweck)이 아니라 타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Mittel zum Zweck)으로 될 때 침해된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존엄을 가진다는 것은 권력에 의하여 인간이 국가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와 산업사회에서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¹⁸⁾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칸트의 이 견해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법을 제정할 때, 그 근간으로 삼고 있다.

시장경제 이전의 중국사회와 이후의 중국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소설 속 묘사가 한 작가의 필치 속에서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위화의 90년대 소설들을 먼저 살펴보면, 90년대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지난한 삶 속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삶을 살아나간다는 특징이 있다. 《인생》에서 비록 福贵(푸구이) 일가의 삶이 고달팠고 푸구이를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은 사고나 병사로 모두 죽었지만, 그들의 삶은 가난 속에서도 가족 간의 사랑과 사람에 대한 연민을 잃지 않았다. 또한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최선

18) 홍성방,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가톨릭사회과학연구》, 제11권 제0호, 1999, 66쪽.

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존엄한 삶의 의미는 《허삼관매혈기》에서 역시 이어졌다. 소설이 문화대혁명이라는 암울하고 어려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허삼관의 삶은 암울하게만 그려지지 않았다. 허삼관은 자기 피를 팔아 일가를 이루었고, 가족들이 위기에 닥쳤을 때마다 역시 피를 팔아 그 위기를 넘겼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가장, 허삼관이었기에 피를 파는 선택 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자신과 가족을 구하기 위한 선택으로, 스스로 기꺼이 희생을 선택하는 그의 모습은 절로 숙연함을 갖게 한다. 푸구이와 허삼관은 비록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살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는 누구보다 경건했다고 볼 수 있다. 작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된 삶의 무게에도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삶을 이어 나가는 인간의 강인한 정신력과 존엄함을 보여주었다. 국공내전, 대약진, 문화대혁명 등, 시대의 풍파 속에서 모두가 힘들고 가난했던 시기에도 묵묵히 삶을 살아온 평범한 중국인들의 삶에 대한 의지를 그려냈다. 또한 작가의 서사 속에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작가의 경외심과 연민이 작품 전반에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발표된 《형제》와 《제7일》을 통해 작가가 들려주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삶의 이야기는 존엄성과 거리가 멀다고 말할 수 있다. 개방개혁 이후, 시장경제 체제를 통해 유입된 자본주의와 사회의 고속 성장, 이에 따른 부의 양극화 현상은 많은 중국인에게 배금주의 사상을 심어주었다. 이에 위화는 《형제》와 《제7일》을 통해 빈부격차와 배금주의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삶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된 채, 객체나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결정의 대상이 되는 것,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것,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치욕을 느끼게 되는 것, 전적을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되는 것”¹⁹⁾ 등 존엄성을 잃어버린 ‘병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19) 홍성방, 앞의 논문, 66쪽.

1. 욕망 앞에 짓밟힌 인간의 존엄성

위화의 소설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귀족 슈메이와 우차오, 양페이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된 이들이 여럿 등장한다.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빚어낸 극단적인 가난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게 되는 일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그러나 자본에 의해 존엄성이 짓밟히는 것이 과연 사회의 하층민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인가? 위화는 그의 소설을 통해 이광두와 李靑(리칭)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의 삶을 광기와 욕망 그리고 정신적인 피폐로 묘사하고 있다.

이광두와 리칭은 타고난 능력과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를 이룬 인물들이다. 부를 이룬 그들의 삶은 시장경제의 논리로만 따져 본다면 분명 성공한 삶이다. 그러나 사람의 삶은 경제학적 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복잡다단한 것이 아닌가? 이광두와 리칭의 삶의 서사를 따라가며 성공과 존엄한 삶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먼저 소설 《제7일》에서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진정한 사랑을 버리고, 자신을 스스로 타락시킨 리칭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서사를 살펴보자. 그녀는 뛰어난 미모와 지성으로 재직했던 회사의 유명 인사였고, 수많은 남성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고백들을 뒤로하고 조용하고 평범한 동료 직원 양페이와 결혼했다. “당시의 아가씨들은 지도층 자체와 결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귀한 집 자식들이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는 될 수 없다는 걸 한눈에 알아차렸다. 회사 사장과 참석한 비즈니스 만찬에서 성공한 뒤 아내를 저버리고 온갖 감언이설로 다른 여자를 유혹하는 남자를 수도 없이 보았던 것이다.”²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을 자신의 배우자감으로 생각했던 리칭에게 소설의 주인공 양페이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심성이 착하고 믿음직한 남자,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감이었던 것이다.

20) 위화, 문현선 역, 앞의 책, 59-60쪽.

리칭의 조용하고 행복했던 결혼생활은 그녀가 성공에 대한 야망에 눈을 뜨면서 끝나버렸다. 자신이 선택했던 가난하지만 착하고 믿음직한 남자 양페이 는 그녀의 야망을 채워줄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리칭은 양페이와 이혼하고 부와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선택했다. 이후 그녀는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재혼한 남성과의 결혼생활은 불행했고, 사업을 위해 공무원과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정보 통신의 발달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창업에 대한 열풍이 불었던 지난 세기 90년대 후반, 그 열풍에 발맞춰 수많은 젊은이가 창업을 시도했고 부와 성공에 대한 열망이 온 중국 사회를 뜨겁게 부채질했다. 《제7일》속 리칭이 바로 그 창업의 열풍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만나 부와 성공을 이룬 인물로 그려졌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더 큰 기회를 잡기 위해 고위 관료층과 유착해서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이는 중국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소설에서는 중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경유착의 문제 역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름답고 능력 있는 여성 리칭이 바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 상납’을 매개로 하여 정경유착과 같은 사회적 병폐를 일으킨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그렇다면 성공한 리칭에게 있어서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된 조사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죽음을 선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리칭은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부와 지위를 얻어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았다. 사업 파트너였던 남편은 “칩을 든 것으로도 모자라 밥업소를 전전하며 아가씨를”²¹⁾ 만났고 그런 남편으로 인해 그녀는 성병에 걸려 불임이 되었다. 또한 사업을 위해 고위 관료와 성적 관계를 맺었던 리칭은 그와의 관계 후, 전 남편 양페이를 그리워했다.

그녀의 삶을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성공했다고 보는 것

21) 위화, 문현선 역, 앞의 책, 81쪽.

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은 자신을 존중과 배려로 대했던 양페이와의 결혼생활과 맞바꾼 것이었고, 정경유착, 특히 ‘성 상품’을 대가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그녀의 이러한 행위가 스스로를 하나의 ‘성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인간은 이런저런 용도에 따라 그 가치가 인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물건’ 즉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닌, ‘나’라고 표현되는, 한낱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갖는 ‘인격’ 즉 목적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 인간 존재의 존엄함이 있고, 신성함이 있는 것이다.”²²⁾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인간 존재의 존엄함과 신성한 가치를 저버리고 사업을 위한 수단, 즉 ‘성 상품’으로 소비되는 길을 택함으로써 진정한 사랑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해 버렸다. 결국 피폐해진 삶에 부와 사회적 지위만이 그녀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던 셈인데, 고위 관료와의 유착관계로 회사가 조사에 들어가고 참고인 조사를 받기에 이르자, 자신의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기 전에 자살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작가가 만들어낸 리칭의 마지막은 자살이 끝이 아니다. 리칭의 이러한 비극적인 죽음은 전남편 양페이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진다. 양페이는 평소 자주 찾던 ‘탄가네’ 음식점에서 전부인 리칭의 부고 기사를 읽다가 그 충격으로 음식점이 불이나 폭발한 것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앉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소설은 망자가 된 양페이와 리칭이 서로를 잊지 못해 사후의 세계에서 재회해 사랑을 확인하는 모습 역시 비교적 비중 있게 그려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두 사람 간의 사랑 보다는 여전히 양페이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성대한 장례식을 위해 또 한 번 그를 두고 떠나는 리칭의 태도이다. 위화의 이러한 상황설정은 리칭이라는 인물에 대해 망자가 되어서까지도 부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물질만능주의의 표상’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남편 양페이와의 재회를 통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마무리될 것 같았지만, 결국 리

22) 백중현, <칸트“인간 존엄성의 원칙”에 비춰 본 자살의 문제>, 《칸트연구》, 제32권 제0호, 206-207쪽.

칭이라는 인물이 결코 사랑에만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의 상징’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리칭 이전에 위화가 《형제》를 통해 만들어낸 ‘물질만능주의의 표상’이 있다. 앞서 언급한 이광두라는 인물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리칭이 아름답고 능력 있는 여인으로 그려졌다면 이광두는 황금만능주의 사회가 낳은 ‘광기’와 ‘욕망’으로 점철된 인물로 그려졌다. 그는 중국의 폐품을 일본에 팔고 일본의 현 옷을 중국, 특히 劉鎮(류진)에 되팔아 번 돈으로 부를 이루었다. “우리 류진의 신분이 좀 높고 체면을 차리는 분들은 죄다 이광두가 가져온 고물 양복을 입었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체면 차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입었다. 류진의 남자들은 멋들어진 양복을 입은 후부터 말에 자신감이 철철 넘쳐흘러 다들 자기들이 외국의 국가원수 같다고들 하고 다녔다.”²³⁾ 이처럼 이광두가 들여온 양복으로 인해 류진의 남자들은 스스로를 뽐내며 과시욕을 드러냈다. 이광두는 류진 남자들의 이러한 과시욕을 이용해 돈을 벌어들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본을 바탕으로 거대한 부를 이루었다. 부를 이룬 이광두는 자신의 욕망을 보란 듯이 만천하에 드러냈는데, ‘처녀’와의 잠자리에 대한 열망으로 류진에서 ‘전국처녀 미인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한 남자의 욕망은 광기가 되어 전국으로 뻗어나갔고, 이에 전국적으로 처녀막 재생수술이 유행하고, 인공 처녀막 장사를 하는 이들까지 생겨났다.

“이건 수입 성녀 정덕 표 인공 처녀막입니다. 한 개에 3백 원이지요. 지금 병원에 가서 처녀막 재생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3천 원입니다. 병원에서 들인 3천 원으로는 딱 한 번 처녀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만...”²⁴⁾

“이것이 국산 맹강녀 표 처녀막입니다. 판매가는 1백 원이고, 병원 수술 비로 환산하면 무려 서른 번 처녀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²⁵⁾

23) 위화, 최용만 역, 앞의 책, 155쪽.

24) 위화, 최용만 역, 앞의 책, 286쪽.

‘전국처녀미인대회’가 개최된 날 인구가 3만인 류진에 10만이 넘는 인과가 몰려들었고, 중국 전역이 마치 이광두의 광기 어린 욕망에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다. 작가는 ‘전국처녀미인대회’와 그로 인해 유행된 처녀막 재생수술, 인공 처녀막 판매 등의 서사를 통해 성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광고되고 팔려나가는 모습을 마치 코미디극처럼 가벼운 어조로 풀어내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돈 앞에서 얼마나 가볍게 취급되고 마는 사회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광두는 자신이 이룬 부를 수단으로 수많은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지만 진정한 사랑도 그토록 집착하던 처녀막을 가진 여자도 찾지 못했다. 그는 여자들을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만 생각했고 그와 잠자리를 가졌던 여자들 역시, 이광두를 존엄한 인격체로 보았다기보다는 자신들의 물질적 ‘욕망을 채워줄 수단’으로만 여겼을 뿐이다.

비록 리칭과 이광두의 욕망이 그들을 성공한 사업가로 만들어 놓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 성공의 이면에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존재했다. 수많은 미인과 잠자리를 갖고도 모자라 직접 미인대회까지 개최했지만,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만족감을 찾을 수 없었던 이광두의 끝없는 공허함, 사업을 위해 고위 관료의 정부가 되었지만, 그와의 육체적 관계가 끝나고 나면 전남 편인 양폐이를 그리워했던 리칭의 외로움과 공허함은 작가가 그려낸 인물들의 경제적 ‘성공’의 이면이다. 그들의 성공은 결코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을뿐더러, ‘욕망’과 ‘성공’의 대가는, 스스로의 가치를,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잃어버리고 정신의 피폐함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올바른 가치관의 성립 없이는 경제적 성공으로 부를 이루었다고 해도 결코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25) 위화, 최용만 역, 앞의 책, 287쪽.

2. 가난 앞에 무력해진 인간의 존엄성

‘물질만능주의의 표상’이었던 이광두와 리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를 욕망의 수단으로 만들며 가치를 훼손했다면, 《형제》의 송강과 《제7일》의 양페이는 정직함과 선량한 인품이 오히려 그들을 사회의 낙오자로 만든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송강은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중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묵묵히 땀 흘려 일했을 뿐 이광두와 같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사업을 해 돈을 벌 재주는 없었다. 그는 다니던 회사가 폐업된 이후 부지런히 움직여 돈을 버는 육체노동을 택했으나 허리를 크게 다쳤고 다시 시멘트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던 중 들이마신 시멘트 먼지로 폐가 망가져 버렸다. 송강은 허리를 다쳐도 폐가 망가져도 “돈 쓰는 것이 무서워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지 않았다.”²⁶⁾ 결국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사기꾼 주유를 따라다니며 자존심을 버린 채 ‘인공 처녀막’, ‘음경증강환’을 팔다가 마지막에는 ‘쪽빵 유방 크립’을 팔기 위해 유방 확대 수술까지 하게 되었다.

송강은 어쩌다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된 중국 사회에서 노동은 더 이상 신성한 것이 아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해도 다친 허리와 손상된 폐를 고칠 의료복지를 제공받기는커녕 송강이 그간 번 돈으로 비싼 의료비를 충당하 다가는 당장의 생계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병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송강은 더 이상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몸이 되기도 했지만, 류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더는 정직하고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은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주유의 꼬임에 빠져 유방 확대 수술을 결심한 송강이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어.”²⁷⁾라고 말하는 대목을

26) 위화, 최용만 역, 앞의 책, 211쪽.

27) 위화, 최용만 역, 앞의 책, 349쪽.

통해, 그가 주유를 따라다니기로 결심한 이유와 어떻게 해서라도 가장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안타까운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작품 속 송강의 노동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땀 흘려 일하던 ‘신성한 영역’에서 ‘남을 속이고 자신의 존엄함을 훼손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육체 노동은 그의 육체적 건강을 앓아갔고,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일은 그의 선량하고 강직했던 자아와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시킴으로써 정신을 병들게 했다.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송강의 외모는 폐병으로 인해 항상 마스크를 쓰고 커다란 유방의 무게 때문에 곱사등이 되면서 사라져 버렸다. 또한 그의 정직하고 선량한 마음은 돈 앞에서 무기력하게 자취를 감추었다. 돈에서 비롯된 송강의 이 비극적인 삶은 흡사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된 이후,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평범하고 선량한 중국인들의 고달픈 삶과, 그 결과 결국 ‘배금주의’에 젖어 들어 영혼까지도 병들고만 서글픈 하층민들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하층민으로 내몰린 많은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양심도 수치심도 버려야 하는 일이, 심지어 사기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신을 마치 물건처럼 수단화해서 돈을 버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은가? “부유한 사람은 생계를 위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선택할 수 있음이 자유고, 자유는 존엄이다. 부유하면 선택할 수 있고, 부유하지 않으면 선택하기 어렵거나 선택할 수 없다. 자유가 없는 것은 존엄이 없는 것이고, 존엄할 수 없는 개인은 고립되기 쉽다. 극단적으로 고립된 개인에게 범죄는 멀리 있지 않다. 먹고 살려다 보면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른다. 법이 아직까지 범죄라고 정하지 않았지만,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충분히 범죄라고 판단되는 것들도 제법 많다.”²⁸⁾ 생계를 위해 원하지 않는 일까지 해야 했던 송강의 몰락은 사실,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며 시장경제 체제하의 어느

28) 김두관,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 서울: 다돌책방, 2021, 18-19쪽.

나라에서나 일어나고 있는 비극이다.

송강의 이러한 몰락은 앞서 언급한바 있는 《제7일》의 주인공 양페이
가 몰락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양페이의 계부 양진바오가 병에 걸리면서
치료비로 가산을 탕진하게 되고, 병간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니던 회사
를 그만두면서 양페이는 순식간에 사회의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중국은 고속 성장을 거듭하여, G2의 지위
에 올랐지만 국민들의 권익을 위한 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생활
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 교육, 부동산 등의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
황에서 수많은 중국인이 비싼 의료비로 인해 병의 치료를 회피하거나 빈
곤층으로 전락하고, 비싼 집값으로 인해 쥐죽으로 밖에 생활할 수 없는 처
지에 놓였다. 사회적 빈곤층으로 자리 잡은 이들의 가난은 인간으로서, 최
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든다. 가난 속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력
한 존재로 변하고 만다. 송강으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수단화하고 양심을
저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제7일》의 여러 등장인물로 하여금 죽음
으로도 막을 수 없는 불평등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시켰다. 위화는 소설을 통해서 바로 이 점, 사회적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
들이 최소한의 존엄성도 지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현장을 묘
사해낸 것이다.

IV. 결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한 사회 안에서 문화, 경제, 정치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중국 사회의 현실을 담아낸 위화의 소설 역시
도 소설의 현실 속에 중국의 문화와 경제 그리고 정치가 담겨있다. 특히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중국은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했고 “한 중국인에게 유럽에

서는 사백 년 동안 겪었을 천태만상의 경험을 단 사십 년 만에 경험”²⁹⁾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위하는 그의 소설과 산문 등을 통해 당대 중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조명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에 따라 사회는 좀 더 풍요로워졌는지 모르지만,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으로 사회적 불균형은 극에 달했다. 지니계수는 20년이 넘게 0.4을 선회하고 있으며, 2021년 한 해 최고의 화두 중 하나가 바로 ‘탕핑주의’였다.

당대 중국사회를 묘사한 위화의 소설을 통해서 들여다본 중국 인민들의 삶 또한 피폐했다. 물론 현재 중국의 모든 인민이 피폐한 삶을 산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작가의 시선이 미치는 곳이 중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과 역사는 이중의 거대한 격차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모두 환자라고 할 수 있고, 모두 건강하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극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의 작가 입센의 말을 읽었다. 그는 말했다. “모든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 책임이 있다. 그 사회의 병폐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하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치료법을 찾는 사람이라 하겠다. 나는 한 사람의 환자이기 때문이다.”³⁰⁾라는 작가의 글을 통해 그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알 수 있다.

위화의 작품 속 등장인물, 성공한 사업가가 된 이광두와 리칭, 사회의 하층민으로 전락한 송강과 양페이, 이들 중 누구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했다. 사회가 만들어낸 거대한 격차 속에서 배금주의에 젖어버린 그들은 ‘환자’의 모습으로 존재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한 채, 영혼이 병들어버린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고찰을 자신만의 필치로 투영해냄으로써 위화는 자신의 업인 글쓰기를 통해서 그가 속한 사회에 대한, 특히 사회의

29) 위화, 최용만 역, 《형제1》, 서울: 휴머니스트, 2007, 8쪽.

30) 위화, 이욱연 역, 앞의 책, 13쪽.

병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김두관, 《당신의 존엄을 위하여》, 서울: 다들책방, 2021.
- 량셴핑, 이지은 역, 《부자중국: 가난한 중국인》, 서울: 미래의 창, 2011.
- 백승욱, 《세계화의 경계에선 중국》, 파주: 창비, 2008.
- 백종현, 《한국 칸트사전》, 파주: 아카넷, 2019.
- 위화, 김태성 역,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간다》, 파주: 문학동네, 2015.
- 위화, 문현선 역, 《제7일》, 파주: 푸른숲, 2013.
- 위화, 이옥연 역, 《우리는 거대한 차이 속에 살고 있다》, 파주: 문학동네, 2016.
- 위화, 최용만 역, 《형제1》, 서울: 휴머니스트, 2007.
- 위화, 최용만 역, 《형제2》, 파주: 푸른숲, 2017.
- 임마누엘 칸트, 김석수 · 김종국 역, 《칸트전집6 도덕형이상학 정초 실천 이성비판》, 파주: 한길사, 2019.
- 한인희·강준영·양평섭·박한진·전병곤·강진석·임대근·장리리, 《중국속의 中國-G2시대: 중국발전의 빛과 그림자》, 서울: 도서출판 대선, 2010.
- 백종현, <칸트“인간 존엄성의 원칙”에 비취 본 자살의 문제>, 《칸트연구》 제32권 제0호, 2013.
- 홍성방,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가톨릭사회과학연구》 제11권 제0호, 1999.

<Abstract>

China implemented Reform and opening-up policy in 1978. Since then, economic development has acceler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in 1992. As China rose to the position of G2 in 2010, it became a rich country comparable to the United States. This development in China is an unprecedented achievement in the history of the world economy.

However, behind this success, there have also been a number of side effects. Social polarization has occurred due to income inequality. And now, the polarization phenomenon has intensified, raising complaints from Chinese people. The Chinese leadership is implementing various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to overcome the polarization phenomenon. But it still hasn't narrowed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Literature also reflects these changes in China's times and the atmosphere of society. Representative works include Yu Hua(余華)'s novels "*Brothers* (兄弟)" and "*The Seventh Day*(第七天)". "*Brothers*" was written from the time of the Cultural Revolution and is now showing the mad appearance of Chinese society. "*The Seventh Day*" uses various events and accidents in Chinese society as the subject of the story. These two novels clearly reveal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inequality that has deepened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This paper examined the history of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which was built according to the ideology of a socialist country. In particular, we reviewed the process of entering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And we looked at the Social polarization phenomenon,

the biggest problem in Chinese society. In addition, through Yu Hua's *Brothers* and *The Seventh Day*, we looked into the other side of society created by the idea of mammonism and inequality. Finally, through the novel, we examined how mammonism and inequality affect human dignity.

Key Words : 중국사회(Chinese society), 사회주의 시장경제(Socialist market economy), 양극화(Social polarization), 불평등(Inequality),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 위화 소설(Yu Hua's novels)